



함은혜
2속

혹시 오늘 교회하셨습니까?

얼마 전, 팟방 <비블리아>에서 한 기자 분이, 사회의 큰 충격 앞에 반성하지 않고 체제 유지에만 관심 갖는 일부 교회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교회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하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박하다' 싶으면서, 교회의 여러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참 뼈아픈 말인데, 부정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말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기사에서 접한 일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개인의 경험들도 연상되실 수 있고요.

저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생각났어요. 비교적 집단이 잘 형성된 교회들을 다닌 덕분에 사랑 많이 받으며 자랐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말을 듣고, 저 역시도 많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애정 어린 관심인지, 호기심 혹은 가십에 불과한 건지 알 수 없는 채로, 다른 사람 일에 관심 갖기도 했어요. 알고 있는 극히 일부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조만한 적도 있어요. 솔직해야 한다면서 생각 그대로를 말해서 상

처를 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행동들이 - 철없던 시절의 일이었더라도 - 뒤늦게 고스란히 돌아온 때도 있었어요. 진실과 허구가 뒤섞인 데다 많은 살이 덧붙여져 무수한 말이 양산되고, 그것들에 의해 평가 받고, 지적 받으며 말이죠. 그런 적 없다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땐 묻는 이가 없잖아요 ㅎㅎ;;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나는 지금 교회에서 교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공감과 위로보다 해결책을 먼저 들이밀지는 않았는지, 직접 겪은 일도 아닌데 다른 이의 말이나 경험만 듣고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멀리 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 가슴에 쿵 찢리는 몇몇 일들도 떠올립니다. 사과 드렸던 분들은 웃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사과 받지 못한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ㅠㅠ

배화교회는 올해 세 살이라 아직은 어리고 건강한데, 구성원인 저는 슬슬 노안이 시작된 마흔에 돌입한지라, 혹시라도 제가 우리 교회를 '교회하는' 교회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기자 분이 "이 사회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닿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스스로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하셨습니까?" 라고요. 언젠가는 이 말이 세상 그 누가 들어도 긍정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배화교회

주보 제 2019-16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4.28

부활절 제2주

여기, 희망이 있다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하나님이며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회 중 :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함께 : 내 영혼아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 기뻐하며 왕께 / 시간을 뚫고

대표기도 성임숙 사모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으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지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시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누가복음 22장 31-34절, 54-61절

31 시몬(베드로)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32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3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송민혜 전도사 **여기, 희망이 있다**

찬양과 기도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

축도* 김영석 목사

지난주 통계

인원	86명
십 일 조	김영석 홍병진 김용석 유재연 박진성 백수산나 서민욱 이아름 이병홍 송민혜 한호철 조진영
감사헌금	권태성 김수현 김영석 홍병진 김용석 유재연 김은철 김택운 김택현 박진성 백수산나 서광희 서민욱 이아름 송민철 김미소 송민혜 송윤경 허경식 함은혜
헌금	주일헌금 강영건 김백준 김재홍 김선민 문지혜 박세연 박소영 서하랑 윤서진 배성경 이동근 이은미 이병홍 임경훈 주영 정우석 조진철 최명성 최영광 최인성 허경식 함은혜 무명
목적헌금	성임숙(일천번제), 허경식 함은혜(선교헌금) 김백준 김수현 김영석 홍병진 김용석 유재연 서민욱 이아름 성임숙 송민혜 송윤경 이병홍 이병홍 한호철 조진영 허경식 함은혜(화재복구를 위한 금식헌금)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 이웃사랑헌금** 지난 주일에 헌금하신 693,000원을 원암교회(고성)에 헌금했습니다. 원활한 복구 작업과 피해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고.
- 유아세례** 다음 주일에는 윤시헌 군의 세례식이 있으니 함께 기도해주시고.
- 어린이마켓** 다음 주일에 열릴 '어린이 착한마켓'을 위한 물품, 어린이 선물 등을 후원 받습니다.(문의: 김선민 집사)
- 축하소식** 김은철 목사님께서 감리교 서울연회에서 '성역 30주년 근속자 표창패'를 받으셨습니다.
- 봄나들이** 오늘은 수성동 계곡으로 봄나들이 갑니다. 산책가서 보물찾고 오겠습니다.
- 수련회신청** 3주 성경공부와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고.
- 손으로목상** 5월에 목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 속회모임** 다음 주일에는 새로운 속도원들과 속회모임을 하겠습니다.
- 배식 및 정리** 오늘은 청년부, 다음 주는 1속입니다.

(*는 첫 모임의 임시진행자)

1속	김용석* 유재연 송윤경 김백준 김미소 문지혜 조영남 정유민 서광희 홍병진
2속	이아름* 허경식 함은혜 서민욱 이은미 김종민 홍성희 강영건 송민철
3속	김예현* 김우리 김수현 임가은 박세연 노준영 박재성 장은유 김영석
4속	한호철* 조진영 권태성 최정용 추세영 임경훈 주 영 김은철 성임숙 송민혜
5속	김재홍* 김선민 정우석 태미선 조진철 박소영 최인성 윤영미 윤서진 배성경
6속	최미사* 조 휘 김미연 김지윤 김승주 김영서 윤희선 심도연 강나영 박진성